

# 조선후기 민중동향의 역동성 부각

정석종 「조선후기의 정치와 사상」  
이이화 「조선후기의 정치사상과 사회변동」

어느 자동차 회사의 광고문안처럼,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마찬가지로 학문에도 한 시대를 이끈 주류가 있는 법이다. 우리는 지난 80년대 한국사회의 극진한 변화를 추동하고 그 변화의 이력을 우리 역사 속에서 자리매김하려 애썼던 노력들을 알고 있다. 그것은 여태 한국 역사를 ‘위에서 아래로’의 힘의 발휘(上以下)로 파악하던 정치사적 안목을 혁명적으로 되돌려 ‘아래에서 위로의 전개(下以上)’를 추적하는 일단의 학자들에게서 그 시대정신은 빛났다.

## 80년대를 몸으로 산 두 사학자

최근 한길사에서 동시에 간행된 이이화씨의 「조선후기의 정치사상과 사회변동」과 정석종 교수의 「조선후기의 정치와 사상」은 여러모로 의미 깊다. 이 두 학자는 간고했던 지난 80년대의 상황에서, 투척과 저항에 앞서지 못하고 저 뒤의 서재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어야 했던 책상물림들에게 그 시대의 부름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제시해주었던 사람들이다. 구태여 조선후기사를 전공으로 일삼는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의 잣대를 우리 역사 속에서 찾고자 했던 사람이라면, 또는 적과 이를 구분할 척도를 찾고자 애썼던 사람이라면 이들 정석종과 이이화라는 이름은 전혀 낯설지 않을 것이다.

사학자의 논문과 저술은 아무리 쓰잘데기 없는 것(?)일지라도 한문으로 된 원전을 번역하여 게재해주는 것만으로도 후학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우스갯소리를 어느 사학도로부터 들은 적이 있거니와, 조선시대란 거의 변동없이 정체되어 있던 시대라고 인식하게끔 만들었던 식민사관이나 군주의 절대적이고 일방적인 통치에 모든 백성들의 삶이 좌지우지 되었다고 생각하게끔 만들었던 왕조사관에 익숙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날의 수사기록이라고 할 공초문을 위시한 사회사 기록들을 추적 정리하여 당시의 생생한 삶을 부각시켜준 두 학자의 저술들은 새로운 시각을 던져주는 것일 수밖에 없다.

“조선후기 민중의 움직임과 사상에 일관된 관심을 가져왔다는 점 외에 자랑할 만한 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정석종)과 “조선후기 이후 민족의 자주, 민중의 저항이라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온” 사람(이이화)이 그 유일한 ‘자랑스러움’과 그 유일한 ‘관심사’를 한권씩의



책으로 묶었으니 이제 우리는 그들의 10년 세월을 한 권의 책 속에서 쉽게 훑아볼 수 있게 된 셈이다. 나아가 그들의 관심이 조선후기의 민중사에 초점이 잡혀 있는 만큼, 그리하여 정치의 장에서는 그들의 관심이 하이상(下以上)의 역학을 갖게 되는 것인 만큼, 두 책의 내용은 흡사하면서도 조금씩 다르다.

그런데 제목을 두고 한마디 하자면 아마 두 저자는 공히 제목 붙이는데 고심했으리라는 짐작을 갖게 한다. 왜냐하면 이이화씨가 서문에서 책의 성격을 논문집이라고 명시하여 밝히고 있듯이, 두 책은 똑같이 그간 학술지나 정기간행물에 발표되었던 ‘논문들의 집성’(논문집)이기 때문이다.

## 흡사하면서도 다른 두 책

정석종 교수가 제목을 ‘정치와 사상’이라고 붙인 것은 내용을 크게 ‘정치편’과 ‘사상편’으로 나누어서 앞에서는 정치사에 관련된 여섯편의 논문을 모으고 뒤에서는 정약용에 관련된 ‘전문적인’ 논문들을 모아두었기에 그 제목이 “정치 ‘와’(and) 사상”이 된 듯하다. 그러나 사실 이 논문들은 이 책에 앞서 간행되었던 「조선후기 사회변동 연구」(일조각)에 비하면 그 치열함과 짜임새에 훨씬 못 미치는 감을 갖는다. 그것은 첫째 정치와 사상간의 유기적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다. 다시 말해 정치도 있고 사상도 있으나 정치와 사상을 이어줄 그 ‘와’(and)를 어디서 찾았지 모르겠다. 둘째, 그간 이슈가 되었던 부분들, 예컨대 홍경래난이나 정다산을 다룬 부분들은 학계에 소화가 된 것인데 그들이 지금 책으로

## 조선후기 민중사에 학문인생을 바친

정석종·이이화씨의 이 책들은 풍성한

사회사 기록들을 추적하여 당시의

생생한 삶을 복원하고 있다.

이들 저작속에 오롯한 민중의 사회사·

저항사는 지난 80년대의 민주화운동이

국학계를 흥기시켜 만들어낸

결과보고서라 할 만하다.

조선후기사를 ‘아래에서 위로의 전개’

로 파악한 논문집이다.

묶여 나오에 따라 생겨나는 식상감 때문인 것 같다.

셋째로, 이들이 거의 대부분 이미 발표된 논문들이라면 그것들의 출처를 명기함으로써 연구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었어야 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도 신뢰를 떨어뜨리는 점이다. 덧붙여 지적할 것은 인용문과 본문이 구분되지 않을만큼 똑같은 행간으로 편집되어 있어 가독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인데—이 점은 홍경래난이나 정약용에 관한 논문들보다는 ‘조선후기 이상향 추구 경향과 삼봉도’와 ‘영조 무신란의 진행과 성격’에서 심하다—그것은 저자가 원문을 축약하지 아니하고 몇 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을 전제하다시피했던 글쓰기에서 비롯된 문제로 여겨진다. 이런 점들로 해서 「조선후기의 정치와 사상」은 ‘새로이’ 상재된 ‘신서’임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제목을 달고 묶은 기념논문집같은 느낌이 강하다.

이이화씨의 경우 “정치사상과 사회변동”이라고 제(題)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 1부에서 조선후기의 정치와 정치사상이라는 제목에 속한 ‘조선조 당론의 전개과정과 그 계보’와 ‘정인홍의 정치사상과 현실인식’ 및 ‘북벌론의 사상사적 검토’, 그리고 ‘척사위정론의 비판적 검토’가 이른바 정치사상에 속하는 논문들이며, 그 이후 제 2부의 동학농민전쟁의 사상과 전개, 제 3부의 19세기의 사회변동과 현실인식에 포함된 11편의 논문은 사회변동에 속하는 것들인 셈이다.

이 책은 일관된 흐름을 갖고 있다. 조선후기 지배세력내의 갈등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로

국가적 수준의 갈등—동학과 민란의 연구로 전개되어 나아간다. 그 가운데 정인홍에 관한 논문은 앞서 발표되었던 「허균의 생각」(뿌리 깊은나무)을 연상시킬만큼 왜곡되어 있던 한 인물의 복원에 성공하고 있는 글로 여겨지며, “동학농민전쟁에 나타난 유림의 대응”은 그 자체로 사회적 영역에서 불거진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설득력있게 설명하고 있다. 이이화씨는 실로 서문에서 토로하듯 “그 흔한 전공의 학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며 “이런 종이때기가 없으면 이 땅에서 학문을 연구하는데 얼마나 장애가 되는가 하는 사실”을 고통스럽게 느끼고 있는 사람이어서인지 마치 조동일의 「우리학문의 길」에서 느꼈던 절절함이 그의 글 속에서 발견된다.

## 옛글 많아 ‘신서’ 이름 퇴색

그러나 그가 서문에서 밝힌 바, “최소한의 오류와 오식만을 바로잡았다”는 말 그대로 정말 ‘최소한’으로만 오식을 바로잡아서인지 상당히 많은 오류와 오식이 눈에 띄는 것이 흠이다. 그 가운데 앞서부터 몇가지를 예시하면 17쪽의 ‘문관’은 ‘문관’의 오식인 것 같고, 66쪽의 인용문에는 탈자가, 124쪽 첫머리에는 오식이 보이며, 98쪽의 아래 인용문에도 ‘노자’가 ‘논자’로 오식되어 있다. 118쪽의 만포첨사는 한문은 첨사(僉使)로 되어 있으면서 ‘렴사’로 써여 있고, 이와 유사하게 141쪽 송시열의 기축봉사는 한문으로는 기축(己丑)이라 해놓고 한글로는 ‘을축’이라 적어 놓았다. 사실 이 책은 저자의 말마따나 논문집이라면, 그리하여 ‘신서’라기보다는 옛 글의 집성이 가깝다면 그 집성의 책만들기는 좀더 꼼꼼하고 정확해야 했으며, 더욱이 어렵고 난잡한 한문이 주류를 이루는 한국학 관련도서에서라면 더욱이 정확성이 중요해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적들은 그야말로 옥에 티에 불과한 기술적인 문제들이다. 우리는 이들 두 저작 속에 오롯한 민중의 사회사, 민중의 저항사야말로 지난 80년대에 고투했던 민주화운동이 국학계를 흥기시켜 만들어낸 결과보고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후학들에게는 이들을 정경다리로 하여 다시금 조선후기의 정치와 사상을 마음질하는 일이 과제로 남겨진다.

배병삼 경희대 강사·정치학